

우리 아파트 분쟁 해결사는 '소통방'

광주시, 주민 갈등 자체 해결 독려
소통지·소통방 아파트에 특화
남구 송화마을에 소통아파트 1호점
주민간 민원 직접 알리고 개선 화답
청소년 화해 놀이터 등 프로그램 다양



송화마을 3단지 소통아파트 제막식을 축하드립니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남구 송화마을 휴먼시아 3단지 조각공원에서 열린 아파트 생활갈등 해결 소통아파트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내빈, 주민과 함께 소통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광주 남구 송화마을 휴먼시아 3단지에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소통아파트 1호점' 개소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행사는 광주시가 2015년부터 마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소통지'와 '소통방'을 아파트에 특화한 '소통아파트'를 홍보하러 마련했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서전교 광주지법 공보판사, 김병내 남구청장, 박용표 송화마을 대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아파트 홍보, 1호점 현판 제막식, 주먹밥 나눔 등이 열렸다. 소통지는 생활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종이 앞면에 적어 상대방 집 문고리에 실명 혹은 무기명으로 걸어두면 주민 스스로 다른 집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뒷면에 적어 화답하는 것이다.

소통방은 불편사항을 아파트에 설치된 소통방에 알리면 주민화해지원인이 중간에서 민원을 받은 주민에

게 이를 알리거나 자리를 주선해 중재하는 방식이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전국 최초로 이웃 간의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도와주는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이 마을공동체 회복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주민 간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 광주지법,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 마

을분쟁해결센터, 자치구 등 45곳에 소통방을 마련했다. 소통방에서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주민화해지원인 359명을 양성했다. 이 밖에 마을,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놀이터', 노년층 주민화해지원인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취임 1년 임택 동구청장

“마을 문제, 주민들 공동 해결 잇고 살던 情 살아나고 있죠”



커뮤니티센터 등 소통로 마련
마을공동체형 도시재생
주민센터 자체 자치위원 선발
쓰레기 등 민원 신속 해결

구상에는 오랫동안 동구에 거주하며 구의원, 시의원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펼쳤던 경험이 녹아 있다.

임 구청장은 “구의원 시절과 달리 최근 동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주민간 소통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 당선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주민 소통 계기를 마련해주고 인문도시 환경을 조성해나간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동구, 이웃간 정이 넘치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임택(55·사진) 동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자치 문화의 변화, 공동체 정신의 구현을 이끌어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임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지역 최초 비관료 출신 민선 구청장으로서 진정한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며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수평적 조직 체계로, 구청 주도 문화에서 주민중심 민관 협력체제로, 양적 성장에서 사람중심의 공동체형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1년, 동구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평직원과 공감토크 등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소통경로 당·복지거점센터·마을커뮤니티센터 등을 지역 곳곳에 마련해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문도시·청년생태도시 조성 등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마을공동체형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했다.

공동체 정신 실현과 더불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임 구청장의

구청 내부에서는 임 구청장 취임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동 주민자치위원 선임 방식을 꼽았다. 그동안 대다수 주민자치위원 선임에는 구청장들의 입김이 작용했지만, 임 구청장은 이 같은 방식을 과감히 탈피, 동 주민센터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도록 했다.

그 결과 구청 지시만 받던 동주민센터는 쓰레기 문제나 도로 교통문제 등을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동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던 ‘인문도시정책관’도 정책 수립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통일인문학 강연, 책 정권 조성, 인문대학 운영, 초등생 통기타교실 등 주민 맞춤형 인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1년은 민선7기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뚜렷이 하고 네트워크와 추진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2년차부터는 더욱 속도감 있게 다양한 정책을 펼쳐 살기 좋은 문화도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국의 5·18들’ 서울서 얼굴 알린다

24~28일 국회의원회관서 특별전
5·18 기록관, 민주열사 130명 소개

5·18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목숨을 던진 1980년대 열사 130명을 소개하는 5·18 전시회가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4일부터 28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전국의 5·18들’ 서울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6일부터 14일까지는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전시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5·18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전국의 5·18들’ 전시는 관람객들의 호응에 따라 20일까지 15일간 연장했고, 이 기간 1만5000여 명이 찾았다. 서울특별 전시는 ‘5·18의 전국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5·18’은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유혈 진압으로 5·18항쟁이 끝난 이후 진상규명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목숨을 바친 ‘전국의 5·18들’ 130명을 하나하나 호명한다.

이어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을 묻기 위한 전국 미 문화원 방화사건과 대학 총학생회 부활,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1980년대 말 공안정국으로 이어진다. 열사들이 남긴 말과 유인물도 전시돼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선도

사업주관기관 선정 4년간 407억 투입...대장내시경로봇 등 세계 경쟁력 갖춰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에 광주에 소재한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07억원(국비 388억원, 시비 19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광주시의 마이크로의료로봇은 2013년부터 6년간 시가 50억원을 투입한 317억원 규모의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구축’ 국책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화 됐다. 현재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가 국내에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수행할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박종오 교수팀은 국내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과 산업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대표적인 기술에는 대장내시경로봇, 캡슐내시경, 능동 캡슐내시경과 줄기세포마이크로로봇 등이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영산강·황룡강 일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市,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광주시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에 따른 생물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토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잡았다.

시민 홍보와 교육, 서식지 살때 조사 후 8월부터 10월말까지 생태계 교란종을 집중 제거한다.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등 주요 하천과 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돼지풀, 돼지배기, 서양금초 등을 뿌리 채 뽑아 제거 효과를 높이고 생육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광산구 장곡동, 서병동, 선암동 일원의 장곡습지 주변에 분포하는 교란식물을 집중 제거하고,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에는 취약계층과 장년층을 임시 채용할 예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7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